

칸트哲學의 梗概 그 系統的 考察(十一)

李相殷

總云하면 所謂靈魂이니 宇宙니, 上帝니 하는 것은 모다가 理性自身이 지어낸 觀念에 不過하고 무슨 實在的 對象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여게 對하여 眞正한 知識을 얻을 수 없다.

眞正한 知識은 知識의 對象이 잇서야 한다. 對象없는 知識은 빈 知識이다. 形而上學의 知識이라는 것은 모다 이런 空洞한 知識에 지나지 못한다. 空洞으로써 實在라하니 이것이 形而上學에서 幼想맞게 안되는 所以이며 또한 칸트가 知識論에 잇서서 形而上學을 否認하는 所以이다.

第五節. 觀念의 用處

그러면 形而上學은 이로부터 完全히 取消하여 할 것인가? 우리의 觀念은 이로부터 學問 上에 아무런 所用도 업는 것이 되고 말 것인가? 아니다. 形而上學은 아즉도 存在할 餘地가 잇는 것이며 우리의 觀念은 空洞하다하여 그 本身의 價値까지 잃는 것은 決코 아니다. 觀念이 幼想되는 所以는 觀念 自身의 허물이 아니오, 그 觀念 應用하는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가 觀念을 實在라고 誤認한 까닭에 비로소 謬論, 矛盾, 自欺의 名種 罪過가 百出하는 것이오, 觀念 自身이 이런 罪過를 가지고 잇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 觀念을 觀念으로 正解하고 그것을 正堂하게 應用한다면 그의 用處는 오히려 적다 할 수 없다. 칸트는 말하기를 觀念은 構成的 原理가 아니고 統御的 原理라 하였다. 그 用處는 우리의 悟性을 引導하여 一定한 目標를 向하여 進行케 함에 잇다. 마치 範疇의 功用이 複雜한 知寬을 統一함에 잇는 것과 가치 觀念의 用處는 卽 複雜한 觀念을 統一함에 잇다. 理性의 目的은 卽 觀念을 依憑하여 우리의 智識을 組織하며 엇던 原則에 依하여 一個의 統一的 系統을 構成하라 함에 잇다. 이 系統的 統一을 到達치 못하면 理性은 永遠히 그의 工作을 停止치 안는다. 만흔 科學的 原理라는 것도 實로는 이런 目的을 爲하여 假設한 觀念일 따름이다. 그것도 다만 假定的 價値만 잇는 것이오, 絶對的 價値는 업는 것이다. 우리가 先驗的으로 알 수 잇는 것은 다만 實在의 樣式

뿐이요, 그 實質을 알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만 實在라는 것은 반듯이 時間的, 空間的 또는 그 他의 事物과 因果, 交互..... 等の 關係를 가진 것인 줄만 알 수 있고 所謂 最後 原因이니 能力이니 或은 實體니 하는 것은 그런 統一이 實祭 上 存在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理性은 항상 이런 統一을 求하여 知識의 系統을 構成하려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한 心理學 宇宙論 및 神學 上의 種種 觀念도 비록 一定한 對象은 업지만 우리는 그것을 假定하여서 우리의 知識을 組織化하고 擴大化할 수 있는 것이다. 心理學에서 靈魂이라는 것을 假定하였기 때문에 心理現像의 事實이 一個의 基礎를 어긋스며 宇宙論에서 宇宙라는 것을 假定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自然世界의 最後的 條件를 放心하고 求할 수 잇스며 神學 上에서 上帝하는 것을 假定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經驗은 一個의 絶對的 統一을 어들 수 있다. 이것이 觀念의 用處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知識論에 잇서서 말이요, 만일 道德論에 잇서서 본다면 觀念의 用處와 重要性은 더욱 크다. 우리의 모든 道德生活과 宗教生活은 그 基礎가 모다 이 觀念우에 잇다. 다시 말하면 人類의 理想은 이 몇 個의 觀念우에 建築되야잇다. 人類가 其他 動物과 다른 所以도 人類가 能히 이런 觀念을 構成하는 까닭이다. 이 觀念을 取消한다면 우리의 道德生活의 基礎는 문허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칸트의 道德哲學에 관한 것이니 이제 우리는 章을 달이 하여 討論하려 한다.